



나는 야
불교신자...
관세음 보살
~~ yo

종교색 짙다고~ woo
진짜 나를 담고 싶었어~ yeah
모임을 '붓다 베이비'라 지었지~ yo

힙합 리듬에 불교 녹여내는 MC 스나이퍼

하늘아래 어디로 갈까 나는 불교신자/ 잘 가거나 극락세계 나무관세음보살/ 병든 자를 가슴에 안고 내 두 눈 감고/ 바람에 부딪혀 좋은 땅으로 날려가길 바라네 (MC 스나이퍼 3집 '신의 시' 중에서)
천불가가 아닌 젊은이들이 즐겨 듣는 대중음악에서 이런 가사가 흘러나온다면? 실제로 이 노래는 한 젊은 힙합 뮤지션이 부르는 랩 가사의 일부다. 힙합 리듬과 강한 비트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신의 철학을 쏟아내는 뮤지션 MC 스나이퍼(26·본명 김정우). 가장 한국적인 랩을 하는 뮤지션으로도 유명하다. 3월 18일 3집 앨범 발매를 앞두고 마무리 작업에 한창인 그를 흥대 앞 카페에서 만났다.
"가사에 직접적으로 '불교신자', '관세음보살'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이 기획사 쪽에서는 너무 종교색이 짙다고 반대 의견도 많았어요. 하지만 제 노래에는 진실한 나의 내면, 진짜 나를 담아내고 싶어 고집을 꺾지 않았죠."

노래를 통해 불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그의 고집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미 1, 2집부터 '육도윤회', '49재 진혼곡' 등 제목만으로도 불교적인 곡들을 발표해왔다. 게다가 일종의 힙합음악 패밀리로 할 수 있는 그의 클랜(Clan)은 아예 '붓다 베이비(Buddha Baby)'라 이름 붙였다. 불교적인 냄새가 물씬 풍겨서일까, 그의 노래에서는 일반 힙합음악에서 접할 수 없는 철학적 무게가 느껴진다.
특히 이번 3집 앨범에는 한국 힙합음악에서 볼 수

없었던 주제들이 많이 담겼다. '신의 시', '마음 난리' 등 개인적인 경험, 사회문제에 대한 풍자까지 폭넓은 이야기를 담은 18곡이 선보이게 된다.

MC 스나이퍼의 음악세계가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그의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사교형자인 그의 손을 이끌어 법당에서 함께 눈물로 참회기도를 하고, <유마경>, <달마 이야기> 등의 책을

'육도윤회', '49재 진혼곡' 등 가득 어머니와 절 다니며 경전공부 열심 거장 사카모토씨와 작업하며 하심깨달아



통해 그의 가슴에 교훈을 심어줬다. 지금도 매년 앨범 발매를 앞둔 시기에는 한달 씩 고향 충북 제천 근처의 사찰에서 아들을 위해 기원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얼마 전 MC 스나이퍼는 일본 뮤지션 류이치 사카모토의 앨범에 래퍼로 참여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류이치 사카모토는 영화 '마지막 황제', '리틀 붓다' 등의

음악을 담당했으며 아카데믹 영화음악상을 수상하기도 한 세계적인 거장이다.

"이제 막 음악을 시작한 친구들은 자기 멋에만 빠져있는데, 오히려 일본음악계에서 신격화 돼 있는 사카모토 선생님은 모든 사람들의 겸손으로 대하시더군요. 그 모습에서 '큰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에게 '하심'을 보여준 사카모토는 그와 작업하게 된 계기를 '우리는 인연'이라는 한마디로 대답하기도 했다. 이 인연으로 탄생한 노래 '언더쿨드(undercooled: 체 식지 않은)'는 제멋처럼 사람들의 체 식지 않은 사랑, 상처, 마음에 대한 곡이다. MC 스나이퍼는 사카모토의 아름다운 선율 위에 이라크 전쟁의 아픔을 랩을 통해 전달하려 했다. 한국어로 된 랩이지만 세계 모든 이들이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곡을 탄생시키려 노력했다.

앞으로 그는 3집 활동과 함께 이달 말부터 방송 출연과 크고 작은 공연 등을 통해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그리고 5-6월쯤에는 가장 큰 과제인 군입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

힙합 리듬 속에 불교를 신는 음성포교사 MC 스나이퍼, 그의 힘 있는 랩을 통해 전 세계에 불법이 노래될 그 날을 꿈꿔본다.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한국-중국 禪脈 대표 선사들 한 곳에

선암사 3월 20일 점안식

청공·태고 스님 등 7인 영정 조사당 봉안 전통 석채화법 이용 김범수 화백 7년 작업



대감 혜능 스님.

중국-한국 선불교의 선맥을 대표하는 선사 7인의 영정이 되살아난다. 영정의 주인공은 중국에 선불교를 전한 보리 달마(?~535) 스님으로부터 대감 혜능(637~713, 입제 의현(?~867), 양기 방회(992~1049), 석옥 청공(1272~1352) 스님과 입제선의 맥을 한국으로 옮겨 온 태고 보우(1301~1382) 스님, 근대 선불교를 계승한 잠경 현변(?~1684) 스님이다.

3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점안과 함께 일곱 명의 스님은 세상에 모습을 다시 드러낸다. 무대는 태고종림 선암사 조사당.

영정 조성 불사를 7년여에 걸쳐 진행해 온 선암사 주지 지허 스님은 "불교계에 새로운 선종을 일으켜 부처님과 조사 스님의 본지가 다시 되살아나기를 바라는 발원으로 영정불사를 생각하게 됐다"고 불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지허 스님은 이 불사를 위해 중국과 일본에 전하는 조사들의 영정을 찾아내고 계승과 어록, 가르침 등의 자료를 정리했다.

여기에 김범수 화백이 힘을 보탤다. 김 화백은 시대에 맞는 복식과 전통 문양 연구작업과 검수를 거쳐 전통 석채화법으로 작품을 완성했다. 특히 김 화백은 선을 하나 그을 때마다 '나무 아미타불'을 외었다. 영정에 연화장 세계가 펼쳐지기를 바라는 자신의 서원을 담기 위함이었다. 이 작업이 7년이나 걸렸다.

김 화백은 "작품 활동은 스님들의 사상과 가르침 뿐만 아니라 생애 까지도 담아야 하는 수행의 길"이라며 "부족하지만 한분 한분 마음을 담아 완성했다"고 말했다.

선암사는 이번 불사가 한국불교 선맥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태고종의 종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061)754-5247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임제 의현 스님.



태고 보우 스님.

무보시 연등영가 인도환생 三 · 七 천도재를 아시나요?

후천 용화세상 구세주 미륵대불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옥(地獄)에 계신 선망부모(先亡父母)님을 극락(極樂)으로 인도(引導)하고 극락(極樂)에 계신 조상(祖上)님을 인도환생(人途還生)하게하여 사바세계(娑婆世界)에 사는 자손은 조상님의 천도 인연공덕으로 유전(遺傳)되어 내려온 인과를 소멸하여야 만사형통하게 되느니라" 하셨으니 미륵대불 금강연화 도량에서 다겁생래로 유전되어 내려온 습업으로 한량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 유주무주 억조 중생들을 구하시려고 무보시 연등영가 인도환생 三 · 七 천도재에 참가 만인을 모십니다.

- 한민족 조고조비(祖姑祖妃)님 원혼
- 임진왜란 호국 원혼
- 3.1 독립운동 호국 애혼
- 6.25 전란 호국 애혼
- 4.19 민주혁명 원혼
- 5.18 민주항쟁 원혼
- 선망부모 애혼 영가

~.~. 안 내 ~.~.

□ 행사 일시

- ◇ 입재 : 개도법림 5021년 윤 2월 1일 (2004. 3. 21) 일요일 오후 3시
- ◇ 초재 : 개도법림 5021년 윤 2월 7일 (2004. 3. 27) 토요일 오후 3시
- ◇ 이재 : 개도법림 5021년 윤 2월 14일 (2004. 4. 3) 토요일 오후 3시
- ◇ 회향 : 개도법림 5021년 윤 2월 21일 (2004. 4. 10) 토요일 오후 3시

□ 장 소 : 미륵대도 금강연화종 총무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 84-3번지
전화 032)832-0626, 832-0345 / 팩스 032)831-8967 www.idaedo.or.kr

□ 주 최 : 미륵대도 금강연화종

□ 후 원 : 세계도량청, (사)미륵종교협의회, (재)대도문화재단, 심천불이회, 三 · 一 장학회